

한국인의 국어 능력 실태

민현식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국어 능력의 개념과 평가의 문제점

정보화 시대에 외국어 또는 국어(모어)에 대한 언어 능력이 중시되면서 각국마다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년 초에 필자의 국어 규범 준수 실태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들의 평균점이 30점 정도 나온 것으로 보도되면서 영어 열풍에 병든 국민의 ‘형편없는 국어 실력’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어 국민의 국어 능력이 최근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그러나 ‘언어 능력’, ‘국어 능력’이란 말은 그 개념과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아직도 불확실하여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이미 국어 실력을 국어 학력 검사 차원에서 시행해 왔기 때문에 국어 능력 평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학교 내의 학력 평가 대신 학교 밖에서 일반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와 개선의 요구가 커서 기존 국어 학력 평가와 차별성을 두는 보편적 평가 도구로서의 국어 능력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언어 능력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말처럼 전통적 언어 능력은 ‘언’(言)과 ‘서’(書)에서 찾았다. 서구에서도 전통적으

로 변론학이나 수사학의 발달로 표현력, 작문력을 중시하였다. 현대에 와서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 능력보다는 언어 구조의 기술에 관심을 집중하였고 행동주의, 경험주의 철학의 귀납법적 언어 연구 방법의 영향을 받아 후천적 언어 학습을 강조하면서 언어 능력을 후천적 경험 학습과 반복의 산물로 보았다.

1950년대 이후 생성 언어학의 시대를 연 촘스키(N. Chomsky)는 언어 능력을 언어 능력(competence)과 언어 수행(performance)으로 나누었다. 특히 생성 언어학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철학, 연역법적 연구 방법의 영향을 받아 언어학을 심리학의 한 영역으로 보는 등 정신 과학으로 보면서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의 규명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사회 언어학, 의미론, 화용론의 발전으로 언어의 다양한 층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면서 촘스키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다원적 분석이 나타나게 된다. 가령, 하임즈(Hymes 1972)는 생성 언어학이 지나치게 추상화하면서 개인의 '사회적 언어 변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새로이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중요성을 제기하여 언어교수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임즈는 의사소통 능력을 '지식'과 '사용'으로 구분하면서,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할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커네일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도 언어 능력을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나누었다.

오늘날 바흐만(Bachman 1990)이나 바흐만과 팔머(Bachman & Palmer 1997)의 경우는 언어 능력을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언어 능력(=언어 지식)과 전략 능력(= 초인지 전략)으로 나누기도 한다.

(1)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 = 언어 지식 language knowledge)

① 조직적 지식(organizational knowledge): 바른 어법으로 문장이나 담화를 조직, 생성하는 능력

ㄱ. 문법적 지식(grammatical knowledge): 문장이 조직되는 원리의

지식으로 어휘, 통사, 발음·문자(표기) 지식을 말한다.

ㄴ. 담화적 지식(textual knowledge): 문장이 담화로 조직되는 원리의 지식으로 응결성(cohesion), 수사법이나 대화 조직의 지식(knowledge of rhetorical or conversational organization)을 말한다.

② 화용적 지식(pragmatic knowledge): 언어 사용자가 문장, 담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의도나 언어 사용 환경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지식을 말한다.

ㄱ. 기능적 지식(functional knowledge): 의사소통 목표와 언어 기능에 따라 쓰이는 지식이다. 기술, 설명, 분류와 같은 관념적 표현, 요청·제안·명령·경고 등의 화행적 표현, 해학이나 문학의 예술적 표현을 사용하는 지식이다.

ㄴ. 사회언어학적 지식(sociolinguistic knowledge): 방언이나 변이형, 변인(registers), 관용 표현, 문화적 지식(knowledge of cultural references) 등의 지식으로 언어 환경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지식이다.

(2) 전략 능력(strategic competence = 초인지 전략 metacognitive strategies)

어떤 언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기(goal-setting), 평가하기(assessment), 계획하기(planning) 등을 실행하는 과정들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언어 능력의 요소는 다양하게 볼 수 있어 언어 능력을 어느 한 가지 평가 도구로 완벽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현식 외(2001)에서는 국어 능력을 (1)담화(화법) 능력, (2)독해 능력, (3)작문 능력, (4)규범 능력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그러나 담화 능력, 작문 능력, 독해 능력의 평가는 채점자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과도한 평가 시간 요구로 부담스럽다. 따라서 표기법 측정과 같은 규범 능력 평가가 비교적 손쉽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규범 능력의 측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1) 표기력 측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의 표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 (2) 표준어 능력 측정: 표준어 구사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표준어 이해와 표준 발음 구사 능력을 측정한다.
- (3) 어휘력 측정: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 (4) 문장력 측정: 다양한 문장이나 글을 제시하고 오류 문장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처럼 언어 능력의 개념을 정의하기도 어렵지만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라 우리는 언어 능력 평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오해와 문제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L. F. Bachman & A. S. Palmer 1997:7).

- (1) 최고의 단 한 가지 평가(one best test)가 존재한다는 미신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평가가 존재하기 어렵지만 최고의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언어 평가 전문가들의 운명이다.
- (2) 언어 평가 도구들이 개인의 모든 언어 능력을 완벽히 다 평가할 수는 없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이라든가, 발음, 표기, 문법, 어휘 능력 등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는 법이므로 이렇게 다양한 언어 능력의 요소를 아무리 우수한 평가 도구라고 해도 일거에 단 한 번의 평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 (3) 평가 도구들의 기술을 맹목적으로 신뢰한다. 대중들은 제시된 도표, 통계들에 대해 절대적, 맹목적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 (4) 언어 평가에 대한 과장된 기대가 있다. 언어 평가란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 없는데 일부의 기능만 측정하는 평가 결과를 두고 한 학생의 모든 언

어 능력에 대해서 평가해 줄 것인 양 환상적 기대를 가지고 있다.

2. 외국의 자국어 능력 평가

오늘날 국가들마다 자국민에 대해서는 모어와 외국어 사용 능력, 수리 능력, 과학 능력의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 교육 투자를 하며, 학업 성취도 측정을 한다. 따라서 모어 화자들에 대한 모어 사용 능력의 평가는 주로 학교 교육에서 '국어 시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외국인들이 어떤 외국어를 제2 언어로 배울 때 외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TOEFL, TOEIC, 일본어 능력 시험, 한어수평고시 등도 있으나 이들 시험은 모어 화자의 모어 능력 평가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국가 교육 향상 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 사업을 통해 미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해 정책 수립에 활용해 왔다. 영국에서는 1975년부터 1988년까지 '학업 성취도 평가치'(Assessment of Performance Unit: APU)에서 영국 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를 하였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자국 내 평가는 최근에 국제 비교 형태로도 발전하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교육 관련 국제 지표를 산출하여 보고서를 내고 있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자 '국제 학생 성취도 평가 연구'(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하고 있다. 이 연구는 1998년에 시작되어 2006년까지 3년 주기 3회 평가로 9년간 지속될 예정인데 32개국에 참여하여 국제 비교를 한다. 우리나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노국향 외 2000).

PISA는 의무 교육이 끝나는 15세 학생들이 21세기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양(素養, literacy)을 측정하며 '소양'을 '읽기 소양, 수학 소양, 과학 소양'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literacy'는 '문식성(文識性), 문해력(文解力)'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미국, 유럽에서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능력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므로 ‘소양’이라는 용어도 무난하다.

이 중에 읽기 소양 평가만 보면 세 가지 차원의 평가를 한다.

과정: 읽기 과업	① 대의 파악하기: 대의, 주제 요약, 핵심어 파악 능력 ② 특정 정보 추출하기: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능력 ③ 추론적 이해하기: 의도 파악, 증거 열거 능력 ④ 내용의 논리적 고찰하기: 글의 내용 비판 능력 ⑤ 형태의 비평적 고찰하기: 글의 형태 비판 능력
내용: 글의 유형	① 산문(묘사, 서술, 해설, 논설, 지시) ② 비산문(서식, 안내문, 광고문, 도표와 그래프, 그림, 표, 지도)
상황: 글의 목적	① 개인 용도: 편지, 소설, 자서전 등 ② 공공 용도: 공문서 등 ③ 직업 용도: 전문서 등 ④ 교육 용도: 교과서 등

이처럼 언어 능력 평가가 ‘소양’ 평가의 관점으로 확산됨은 미국 내의 ‘소양’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은 다양한 언어 배경에 따른 이민자 언어공동체 이므로 영어 공용어 정책과 이민자의 모어를 배려해 주는 이중언어정책이 공존한다. 이에 따라 영어 능력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2년부터의 전국 성인 소양 조사(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가 그런 예이며 1992년부터의 조사 결과는 ‘미국 국립 교육 통계 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cs)에서 ‘미국에서의 영어 소양과 소수 언어 민족 실태’(English Literacy and Language Minorities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라는 조사 보고서로 나왔다. 이들 연구에서도 PISA 연구처럼 ‘소양’(literacy)을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자기 지식과 능력을 발전시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쇄되거나 필사된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NCES 2001: 7)이라고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세 영역으로 나눈다.

- (1) 산문 소양(prose literacy): 신문 사설, 뉴스, 시, 소설 따위의 이해 능력
- (2) 문서 소양(document literacy): 이력서, 봉급 명세서, 교통 시간표, 지도, 도표 등을 보는 능력
- (3) 수리 소양(quantitative literacy): 수리 계산, 주문서 작성, 이자 계산 등의 수리 능력

미국의 성인 소양 조사는 1992년부터 훈련된 400여 명의 면접 조사원들이 미국 전역에서 26,000여 명의 성인 거주자에 대한 읽기 능력 면접 조사를 하였다. 특히하게 이 중에는 연방 및 주 정부 관할 80개의 교도소에서 선발한 1,150명의 재소자들도 포함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입증되었다.

- (1)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12세 이전에 오면 미국 태생의 성인 수준의 영어 유창성을 보여 준다.
- (2) 영어 숙달도의 차이는 인종적 배경의 차이가 크게 영향을 끼친다. 아시아-태평양계 사람들이나 히스패닉계들은 가정에서 영어와 다른 모어로 양육되다 보니 영어 숙달도가 떨어진다.
- (3) 교육은 소양을 높인다(Schooling Enhances Literacy). 12세 이상의 연령에 이민 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을 통해 소양을 높이고 있어 점차 이중언어자(bilingual)나 이중언어 소양자(biliterate)가 된다.
- (4) 소양과 보수(literacy pays): 영어에 미숙하면 직업과 보수에서 능숙자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은 대략 예상된 결론이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광범위한 소양 조사를 하는 것은 미국과 같은 다민족 사회의 언어 정책상 불가피하

다. 우리의 경우 단일 언어 사회라 이런 소양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일본 문화청의 국어과와 국어연구소가 매년 행하는 ‘국어 세론(世論) 조사’와 같은 국어 사용 실태 조사는 국어 정책이나 국어 교육 정책을 위해 우리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체계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민현식 외 2001).

3. 한국인의 국어 능력 평가

우리나라의 경우 국어 능력 평가는 학교에서 학력 평가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다. 미국, 영국에서처럼 전국 규모의 학생 성취도 평가 연구를 1959년에 중앙교육연구소가 주관하기 시작한 이래 여러 기관이 평가를 시행해 오다가 1986년-1997년까지는 국립교육평가원이, 1998년 이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가 수준의 교육 성취도 평가 연구를 해 오고 있어 이 중에 국어과 학력 평가를 행한다. 대입 수능 시험의 언어 영역 평가도 학력 평가 차원의 평가라 하겠다. 최근에는 OECD의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인 PISA 조사에도 참여하였다. 2000년의 PISA 조사에서 평균은 읽기 61.53점, 수학 52.27점, 과학 54.61점, 총점 평균 59.32점으로 나타났고 일부 하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지나치게 낮아, 전체 평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읽기의 경우, 일반계와 실업계 학생의 평균은 각각 66.48점과 52.85점으로 차이는 13.7점이었다. 남녀 성별로는 읽기의 여학생 평균이 63.27점, 남학생 평균이 60.27점으로 약 3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나, 수학과 과학에서는 남학생 평균이 4점 정도 높아 비교된다(노국향 외 2000).

독서 능력에 대한 결과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학생들 30%가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공부와 상관없이 독서하는 시간					
단위: 총 4981명(%)					
독서하지 않는다	하루 30분 미만	하루 30분-1시간 미만	하루 1시간 - 2시간 미만	하루 2시간 이상	무응답
1,538 (30.88%)	1,469 (29.49)	1,084 (21.76)	579 (11.62)	296 (5.94)	15 (0.30)

독서의 읽기 전략 조사는 다음과 같다.

단위: 총 4981명 조사(%)

글을 읽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훑어 읽기를 함	562 (11.28)	905 (18.17)	2,389 (47.96)	1,097 (22.02)	28 (0.56)
필요한 정보가 있는 부분을 찾아 읽음	409 (8.21)	915 (18.37)	2,586 (51.92)	1,037 (20.82)	34 (0.68)
처음부터 꼼꼼히 읽음	589 (11.82)	1,578 (31.68)	1,797 (36.08)	984 (19.76)	33 (0.66)
글을 읽으면서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려 함	405 (8.13)	1,059 (21.26)	2,401 (48.20)	1,086 (21.80)	30 (0.60)

학생들의 글을 읽는 방법은 ‘훑어 읽기를 한다’나 ‘필요한 정보가 있는 부분을 찾아 읽는다’가 높은 반응을 보여 처음부터 꼼꼼히 읽지는 않으며, 필요한 정보 위주로 훑어 읽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학생들이 매일 읽는 글은 광고문이 30.11%로 가장 높으며, 만화가 23.21%, 신문 기사는 22.12%, 신문 사설은 10.12%를 차지하였다. 1주일에 몇 번 정도 읽는 글로는 만화가 가장 많아서 24.59%이며, 광고문은 23.45%, 신문 기사가 17.99%이며, 신문 사설이 12.83%를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은 학력 평가 차원의 국어 능력 평가를 빼면 담화 능력, 작문 능력, 독서 능력, 규범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체계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독서 분야에서 그런 실태 조사가 있는 정도이다. 가령, 한국출판연구소 같은 곳에서 1993년부터 매년 조사하는 ‘국민 독서 실태 조사’와 같은 것이 국민의 독서 실태를 보여 주는데 넓은 의미의 ‘독서 능력’의 실태로 볼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성인 연간 독서율은 1999년 통계의 경우 77.8%이고 1년 동안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독서 기피층도 성인의 22.2%나 된다. 학생의 한 학기 독서율은 9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학생 100명 가운데 6명 정도는(6.1%) 한 학기 동안에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도 학생들의 한 학기 독서량은 초등학교 23.3권, 중학생 9.6권, 고등학생 7.1권으로 초·중·고 모두 3년 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인터넷 사용 시간 증가 탓으로 보인다. 1999년의 성인 독서 시간은 평일 37분, 주말 34분으로 TV 시청 시간(평일 112분, 주말 151분)에 비해 평일은 $\frac{1}{3}$ 로, 주말은 $\frac{1}{4.4}$ 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서 실태 조사를 빼면 국어 규범 능력 실태를 조사한 것이 주목된다. 민현식(1995)에서는 초·중·고·대학·일반인 각 300명(남녀 150명) 총 1500명을 상대로 70문항의 객관식 어문 능력 조사를 한 바 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초등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일반인	평 균
남(%)	50.50	51.95	54.04	54.91	52.86	52.85
여(%)	52.83	56.50	57.91	56.56	55.25	55.81

이처럼 52~55점 평균이던 것이 2001년에 초·중·고·대학·일반인 남 536명, 여 533명을 상대로 다음의 55문항(초등생은 45문항 평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의 결과가 나왔다. 문항마다 반응도(%)를 제시한다(민현식 외 2001).

<맞춤법 1 단계> 10문항

정답

1. ① <u>있습</u> ② <u>있음</u>	0.11	0.89	[2]
2. ① <u>그러면 안 돼요</u> ② <u>그러면 안 되요</u>	0.63	0.37	[1]
3. ① <u>담배를 <u>얕</u> 피움</u> ② <u>담배를 <u>안</u> 피움</u>	0.06	0.94	[2]
4. ① <u>공사 중이니 돌아가 <u>주십시오</u>.</u>	0.83		
② <u>공사 중이니 돌아가 <u>주십시오</u>.</u>	0.17		[1]
5. ① <u>내가 <u>도와줄게</u></u> ② <u>내가 <u>도와줄게</u></u>	0.48	0.52	[1]
6. 그것은 {① <u>책이예요</u> ② <u>책이예요</u> }	0.31	0.69	[2]
7. ① <u>출석을</u> ② <u>백분을</u>	0.24	0.76	[2]
8. ① <u>초점</u> ② <u>덧가</u>	0.64	0.36	[1]
9. 제 나이 {① <u>스물 여섯이예요</u>	0.54		
② <u>스물여섯이예요</u> }	0.46		[2]
10. ① <u>김양수</u> ② <u>김 양수</u>	0.67	0.33	[1]

<맞춤법 2 단계> 10문항

1. ① <u>깨끗이</u> ② <u>깨끗히</u>	0.74	0.26	[1]
2. 국립국어연구원은 어문 정책 전반에 관련된 연구를 주관하는 {① <u>기구로써</u> ② <u>기구로서</u> } 국어사전 편찬과 각종 어문 규정의 제정, 보급을 통하여 ……	0.41	0.59	[2]
3. ① <u>출판연도</u> ② <u>출판년도</u>	0.42	0.58	[1]
4. ① <u>장미빛</u> ② <u>수돗물</u>	0.40	0.60	[2]
5. ① <u>가던지 오던지</u> 알아서 해.	0.20		
② <u>얼마나 <u>울었던지</u></u> 눈이 툭툭 부었다.	0.80		[2]
6. ① <u>어제 보니까 <u>혜정이가 참 예쁘대</u>.</u>	0.24		
② <u>사람들이 <u>진옥이가 예쁘대</u>.</u>	0.76		[2]
7. ① <u>만들</u> ② <u>만들</u>	0.50	0.50	[2]
8. 동호인 회장에게 일괄 배부하여 관리케 {① <u>함으로써</u> ② <u>하으로써</u> } 사용과 보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0.72	0.28	[1]

9. 숙제를 해 온 학생은

{① 철수뿐이었다, ② 철수 뿐이었다}. 0.38 0.62 [1]

10. ① 제 2장 ② 제2 장 0.93 0.07 [2]

<맞춤법 3 단계> 10문항(초등학생은 3단계 평가 제외)

1. ① 편지를 붙이다 ② 붙을 붙이다 0.33 0.67 [2]

2. ① 실력을 늘이다 ② 재산을 늘리다 0.10 0.90 [2]

3. ① 프로야구 우승팀을 알아맞춰 보세요 0.79
 ② 예방 주사를 맞히다 0.21 [2]

4. ① 세째 ② 셋째 0.12 0.88 [2]

5. 총무과에서 다음과 같이 {① 통보하여 온바, ② 통보하여 온 바} 이를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 0.78 [1]

6. ① 홍길동 씨 ② 홍길동씨 0.38 0.62 [1]

7. 그가 {① 오는 지 ② 오는지} 모르겠다 0.34 0.66 [2]

8. ① 세 살바기 ② 세 살배기 ③ 세 살박이 ①③합 0.63 ②0.37 [2]

9. 이 자리를 {① 빌려 ② 빌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12 0.88 [1]

10. ① 국가간의 계약 ② 국가 간의 계약 0.44 0.56 [2]

<외래어 표기> 7문항

1. ① 파일(file) ② 화일(file) 0.64 0.36 [1]

2. ① 커피숍 ② 커피샵 ③ 커피쉰 ①0.76 ②③합 0.24 [1]

3. ① 리더쉽 ② 리더십 0.68 0.32 [2]

4. ① 디스퀄 ② 디스켓 0.06 0.94 [2]

5. ① 쥬스 ② 주스 0.60 0.40 [2]

6. ① 케이크 ② 케익 ③ 케익 0.29 ②③합 0.71 [1]

7. ① 보우트 ② 보트 0.11 0.89 [2]

<로마자 표기> 3문항

- | | | | |
|---------------------------------|-------|----------|-------|
| 1. 홍길동 ① Hong Gil-dong | ①0.56 | ②③합 0.44 | [1] |
| ② Hong Gil Dong | | | |
| ③ Gildong Hong | | | |
| 2. 덕수궁 ① Duksugung ② Deoksugung | 0.51 | 0.49 | [2] |
| 3. 속리산 ① Songnisan ② Sogllisan | ①0.19 | ②-④0.81 | [1] |
| ③ Mt. Songni ④ Mt. Sokri | | | |

<표준어> 10문항

- | | | | |
|---|------|------|-------|
| 1. 김치를 {① <u>답가</u> 먹다 ② <u>답귀</u> 먹다} | 0.33 | 0.67 | [1] |
| 2. 우리의 {① 바람 ② 바램}은 남과 북의 주민들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죠. | 0.29 | 0.71 | [1] |
| 3. 휴연을 {① 삼가 ②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32 | 0.68 | [1] |
| 4. ① 멋 <u>장</u> 이 ② 멋 <u>쟁</u> 이 | 0.22 | 0.78 | [2] |
| 5. {① <u>웬</u> 지 ② <u>웬</u> 지} 가슴이 두근거린다. | 0.75 | 0.25 | [1] |
| 6. ① <u>웃</u> 어른 ② <u>윗</u> 어른 | 0.77 | 0.23 | [1] |
| 7. {① <u>설레</u> 는 ② <u>설레이</u> 는} 마음 | 0.54 | 0.46 | [1] |
| 8. {① <u>우레</u> ② <u>우뢰</u> }와 같은 박수 소리 | 0.30 | 0.70 | [1] |
| 9. ① <u>상추</u> ② <u>상치</u> | 0.77 | 0.23 | [1] |
| 10. ① <u>안절부절</u> 하다 ② <u>안절부절못</u> 하다 | 0.47 | 0.53 | [2] |

<표준 발음> 5문항

- | | | | |
|---|------|------|-------|
| 1. 읽기 ① [익 <u>끼</u>] ② [일 <u>끼</u>] | 0.16 | 0.84 | [2] |
| 2. 꽃이 ① [꼬 <u>치</u>] ② [꼬 <u>시</u>] | 0.83 | 0.17 | [1] |
| 3. ① <u>납량</u> [<u>남</u> 녕] 특집 ② <u>납량</u> [<u>나</u> 병] 특집 | 0.82 | 0.18 | [1] |
| 4. 일요일 ① [이 <u>료</u> 일] ② [일 <u>료</u> 일] | 0.82 | 0.18 | [1] |
| 5. ‘夜’를 뜻하는 단어의 발음은?
① <u>밤</u> [<u>밤</u>] ② <u>밤</u> [<u>밤</u>] | 0.52 | 0.48 | [2] |

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대	남		여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생(45문항)	42.29	5.65	46.04	5.78	44.16	5.99
중·고등학생(55문항)	31.22	4.68	31.29	3.64	31.26	4.18
대학생(55문항)	37.20	5.47	33.10	4.49	34.23	5.11
일반(55문항)	28.77	4.73	31.77	5.42	29.81	5.16

초등생은 10문항이 적어 평균점이 높아졌다. 나머지 집단의 평균점을 비교해 보면 대학생 집단이 가장 높고 일반인 집단이 가장 낮다. 남자 평균점과 여자 평균점을 비교해 보면 대학생만 제외하고 모두 여자들이 높다. 이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규범 준수 의식이 더 높다는 일반적 결론과 일치한다. 다만 대학생 집단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점수가 높은 것은 남대생이 여대생보다 우수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위 평가 결과는 충격적이다. 전체 평균이 29점~34점 사이라는 것인데 이는 민현식(1995)에서 70문항을 측정하였을 때의 평균이 50점~55점 사이였던 것과 비교하여 너무 점수가 낮은 것이었다. 이처럼 낮아진 원인은 문항수가 준 것도 한 원인이지만 90년대 중반 이후의 학력 저하 현상이 국어과에도 미친 탓이거나, 통신 언어의 오용, 영어 중시와 국어 경시 태도의 탓 등으로 추정된다.

2001년 5월부터는 민간 재단 법인 언어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국어 능력 인증 시험 제도’가 생겨 8,289명이 응모하여 ‘듣기, 쓰기, 읽기, 어휘, 어문 규정’이라는 5대 영역 120문항으로 국어 능력을 측정하였다. 그런데 응시 결과 다음 표처럼 어문 규정이 제일 낮고 그 다음이 어휘, 쓰기, 읽기, 듣기의 순서라 어문 규범 교육과 어휘 교육, 작문 교육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었다. 또한 응시생의 85%가 고교생이고 문항이 학력 평가와의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영역	문항수	백분을 환산 점수
듣기	30	86.30
어휘	15	72.86
어문 규정	15	65.24
읽기	40	80.81
쓰기	20	75.72
전체	120	78.40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국어 능력 시험은 종합적인 국어 사용 능력의 평가를 목표로 하여야 하므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의 언어 영역 시험과 같은 학력 평가와 달리 입시 평가의 구속에서 벗어나 개인의 표현과 이해 능력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국어 능력 평가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한국인의 국어 능력 평가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기존 국어 능력 평가는 입시용 학력 평가 차원이라 학생들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다 보니 이들이 사회인이 되어서도 혼란스러운 국어 사용 실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국어 능력 평가의 개념과 요소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국어 능력을 담화 능력, 독해 능력, 작문 능력, 규범 능력 정도의 4대 능력 범주로 설정하고 이들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척도를 개발함이 좋을 것이다. 특히 기존 평가 척도들에는 규범, 독서, 작문 중심의 평가가 많고 말하기, 듣기 평가가 빈약하므로 이 부분의 평가 도구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우리의 국어 사용 능력이 매우 비관적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규범 실천 능력 향상을 위하여 표기력, 표준어 능력, 어휘력, 문장력 향상을

위하여 정확하고 바른 국어 사용 능력 함양 교육이 초·중·고교 교육에서부터 철저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어 사용 능력 평가의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표준적, 정기적 국어 사용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 기초 자료가 축적되어야 한다. 가령 국어연구원과 문화부 국어정책과는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계획을 광범위하게 수립하여 그것을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노국향 외(2000). OECD학업 성취도 평가와 연계한 국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지표 개발 연구.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 민현식(1995). 국어 오용 표현의 예방적 지도법 연구. 국어교육 89·9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민현식 외(2001). 국어 사용 실태 지수 개발 및 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문화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 재단법인 언어문화연구원(2001). 제1회 국어 능력 인증시험 결과 보고서.
- 한국출판연구소(1993-1999).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자료집.
- 황정규(2001). 21세기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길러야 할 학력의 성격. 2001년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 학술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Bachman, Lyle F.(1990, 1997).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Univ. Press.
- Bachman, Lyle F. and Adrian S. Palmer(1996, 1997).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Oxford Univ. Press.
- Hymes, D.(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 J. Holmes (Eds.) Sociolinguistics. Pengui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cs(2001). English Literacy and Language
Minorities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NCES 2001-464)